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②①>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과연 낮은가?

-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피용자보수(또는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합산)를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NI)으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노동소득분배율 계산방식】

-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로는 한국은행 방식과 OECD방식이 있음. 한국은행 방식은 피용자보수를 NI(국내총생산에서 간접세와 보조금의 차액을 공제)로 나누는 데 비해, OECD 방식은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자영업자의 1인당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반영한 수치를 GVA(국내총생산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로 나누어서 산출한다는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보다 대략 10%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OECD 주요 회원국과의 비교】

- OECD통계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OECD 주요국(G7)에 비해 5~10% 높게 나타나다가 2010년 이후 부터는 점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현재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미국 63.7%, 영국 69.6%, 독일 67.6%, 프랑스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1.1%로 큰 차이가 없음.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40%를 넘었던 1990년에는 노동소득분배율도 82.5%에 달했으나 30%대로 낮아진 2000년대에는 70%대로 함께 낮아졌으며 20%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2010년 이후에는 70% 초반대의 안정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OECD 방식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과대 계상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역으로 한국은행 방식은 아예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 계상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OECD나 한국은행 방식 모두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

<표 1> 한국은행 발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56.8	57.8	59.4	59.9	60.9	61.7	62.6

주 : 2010년 기준 국민계정 통계임

<표 2> OECD 주요 회원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

	1990	2000	2010	2011	2012
미국	68.2	67.7	63.8	63.7	-
영국	70.7	69.1	69.6	69.6	70.4
독일	69.9	72.0	67.8	67.6	68.5
프랑스	70.4	67.6	68.6	68.6	69.0
일본	65.2	64.7	59.1	60.6	-
이탈리아	76.4	66.1	68.6	68.3	68.7
캐나다	65.2	61.3	-	-	--
한국	82.5	76.6	70.6	71.1	71.8

<표 3> OECD 주요 회원국의 전체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중

(단위 : %)

	1990	2000	2010	2011	2012
미국	8.88	7.42	7.05	6.83	6.77

영국	15.19	12.82	13.85	13.96	14.63
독일	-	10.96	11.62	11.73	11.62
프랑스	13.71	9.26	9.39	9.69	-
일본	23.29	16.61	12.19	11.27	11.79
이탈리아	29.12	28.49	25.57	25.31	25.21
캐나다	9.47	10.61	9.28	9.03	8.89
한국	40.83	36.85	28.78	28.24	27.41

【참고자료】

노사정위원회, 2014 임금보고서

이병희,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월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OECD, Data(<https://data.oecd.org/>)